

나주 혁신도시 직장인 평균 연봉 6360만원...서울 안 부럽다

부동산업 '호갱노노' 직장인 연봉 비교...광주 3470만원·전남 4000만원
17개 시·도 중 서울 4550만 최고...광주는 서구가 3650만원으로 최고

공기업이 몰린 나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고, 광주에서는 동구 대인동 소재 기업들이 많은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부동산 정보업 호갱노노가 최근 공개한 지역별 직장인 연봉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광주 3470만원·전남 4000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5번째와 6번째로 높다.

직장인 수는 광주 19만7192명·전남 31만913명으로 전국에서 각각 15번째, 8번째로 많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서울(4550만원·근로자 수 363만3000명)으로, 광주보다 1080만원, 전남보다 550만원 많다.

서울에 이어서는 경기(4310만), 경북(4220만), 울산(4170만), 충남(4040만), 전남

(4000만), 경남(3990만), 대전(3840만), 세종(3780만), 인천(3750만), 충북(3630만), 부산(3620만), 대구(3580만), 강원·광주(각 3470만), 전북(3330만), 제주(3240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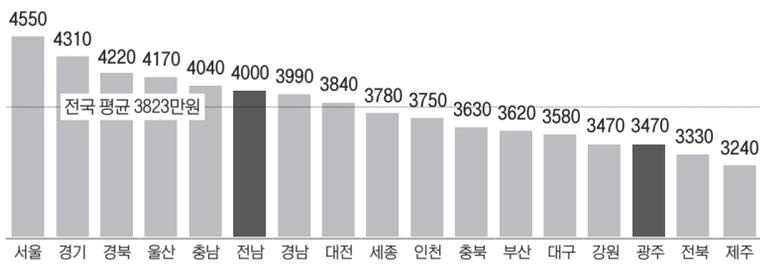
광주 5개 자치구 평균 연봉을 비교해보니 서구 평균 연봉이 3650만원(근로자 수 4만5039명)으로 가장 높았다.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7000명이 넘는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평균 연봉은 6008만원이다.

서구 다음으로는 동구 3630만원(1만6855명)→광산구 3540만원(6만7477명)→북구 3250만원(5만2206명)→남구 3140만(1만5615명) 순으로 높았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동(洞)은 동구 대인동

17개 시·도 평균 연봉



(6270만)으로, 서구 내방동(5930만) 보다 340만원 가량 많았다. 대인동에는 광주은행 본사가 있는데, 종사자 1710명의 평균 연봉은 8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모인 나주 평균 연봉이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5000만원을 넘겼다.

나주 직장인 7만1176명의 평균 연봉은 5660만

〈단위:만원〉

(4110만), 영암(4040만), 광양(3960만)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회순(3420만), 해남(3270만), 장성(3240만), 순천(3230만), 함평(3180만), 영광(3140만), 담양(3130만), 진도(3080만), 강진(3060만), 무안(3050만), 곡성(3040만), 신안(3010만) 등이 뒤를 이었다.

완도(2950만·근로자 수 4388명), 장흥(2940만·4207명), 구례(2870만·2758명), 목포(2850만·1만9426명) 등은 평균 연봉이 3000만원을 밑돌았다.

목포 평균 연봉은 나주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는 2810만원에 달한다.

이 모바일 앱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각 지역에 속한 기업이 지급한 연간 총 급여액과 평균 급여액, 근로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기업 소재지는 국민연금 등록지 기준으로 분류했고, 급여 정보는 국민연금과 금융감독원 정보를 활용해 추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빼빼로에 응원·격려 메시지 담아요 롯데마트 광주수완점 직원이 이른바 '빼빼로데이'(11일)를 앞두고 다양한 막대과자를 선보이고 있다. 비대면 문화 속에서 과자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7.20 (+30.70)
↑ 코스닥	851.21 (+14.43)
↑ 금리(국고채 3년)	0.959 (+0.016)
↓ 환율(USD)	1113.90 (-6.50)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나주(주)대한식품 선정

국내 최초 누룽지 인스턴트 개발

나주에서 누룽지 간편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올해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을 받았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9일 나주 농식품업체 (주)대한식품 한윤경 대표에 '2020년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대한식품은 국내 처음으로 누룽지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했다. 전남 고흥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 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인정받았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은 NH농협은행이 농식품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경영성과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선 전국 10개 기업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 기업에는 대출금리 우대, 기업건설링 무료제공, 농협하나로유통 입점 상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벤넬지역아동센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벤넬지역아동센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최근 북구 중흥동 '벤넬지역아동센터'를 63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하고 태블릿PC와 수업용 집기를 선물했다. 이춘우(왼쪽) 부행장이 선정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 선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 신임 상임감사위원에 최영호(56·사진) 전 광주 남구청장이 선임됐다.

한전은 9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임감사위원으로 최 전 청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공시된 상임감사 연봉 합계액은 1억 9480만원으로, 사실상 한전의 2인자 자리로 알려져왔다.

이정희 전 상임감사위원은 21대 총선 출마 준비로 지난해 12월 중도 퇴임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이종환 전 기술혁신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해 사업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보성 출신인 최 상임감사위원은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와 제3대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제4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6, 7대 광주시 남구

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탈락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